

중양아시아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인 연구

이미정* · 우루쿤치예브 아들백** · 박수정
· 아이고자예바 아이게림(인하대학교)

국문요약

본 연구는 재한 중양아시아 유학생이 경험하고 있는 한국에서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인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밝히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중양아시아 출신 유학생 5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인터뷰와 전화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중양아시아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생활습관의 차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치관의 차이 등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문화적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한국의 '빨리 빨리' 문화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이 유목문화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느린 속도에 익숙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나이, 지위에 따라 다른 한국의 인사법과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셋째, 한국 사람들이 가족보다 일과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문화 충격, 두려움, 향수병 등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한국 사람들이 소리를 내며 식사를 하거나 짧은 옷을 선호하는 옷 스타일을 보며 문화 충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싼 물가 때문에 경제적 두려움을 겪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아플 때와 문화 충격을 받았을 때 고향과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 사람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하거나, 새로운 문화를 알아가기 위하여 질문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중양아시아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안정적이며 적극적인 유학생생활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문화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 차이, 가치관 차이, 중양아시아

* 주저자, leemijung@inha.ac.kr

** 교신저자, sadyrov1588@naver.com

I. 서론

최근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세계화 경향에 따른 정치·경제적 영역의 활발한 교류와 함께 각 나라간 교육, 문화, 체육 등 다양한 측면의 교류 역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도 국제화·세계화에 발맞추어 세계 각 국에서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입국하여 공부하려는 유학생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한유경, 2008). 2014년 교육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연도별 추이에 의하면, 2003년대 12,314명이던 외국인 유학생이 2005년에는 22,556명, 2009년에는 75,850명, 2014년에는 84,891명으로 2006년대와 비교하여 약 7배가 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교육부 통계, 2014). 외국인 유학생은 다문화사회의 질적 변화를 이끄는 동인 중 하나이다. 외국인 유학생은 출신국의 미래 엘리트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향후 국가 간 경제적, 정치적 학술적 교류 협력에 가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이 정책 대상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강현민, 2014).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외국인 학생 수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중국을 비롯한 일본, 대만, 베트남, 몽골 우즈베크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크스탄 등 재한 유학생들의 출신국가들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한국 사회 적응문제를 비롯하여 문화적응, 학교생활, 학업수행,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은 많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유학생들은 자신들의 모국을 떠나 유학하고자 하는 새로운 국가에 도착하는 시점부터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던 외국 유학생들은 현재 소속된 지역의 사회·문화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최송미, 2003). 미국의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은 미 국인 학생보다 심리적 문제를 가진 위험집단(high-risk group)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Dillard & Chisolm, 1983; Padilla, Alvarez &

Lindohlm, 1986; 장혁심, 2003). 또한 Philips & Norsworthy(1997)에 의하면 외국인 유학생들이 미국에 들어 온 후 처음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은 문화적인 충격이라고 하였다.

한국의 대학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하는 외국인 유학생들도 지금까지 생활 하였던 모국의 환경과 다른 새로운 환경에서 대학생활에 적응하여야 하는 과제를 갖게 된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문화충격의 대안적 용어이기도 하지만 심리적 혼란과 부적응인 행동의 일반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Berry & Kim, 1987).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개인들은 그 과정에서 많은 정신적·육체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재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황해연, 2007; 나임순, 2006; 엄혜경, 2003). 엄혜경(2003)은 재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화적 충격과 적응에 관련하여 연구를 하였다. 그리고 나임순(2006)은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서는 향수병으로 인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다음은 지각된 차별감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한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행된 '재한 중국유학생의 대인관계문제와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가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언어적인 면 또한 학업적응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황해연, 2007).

그러나 최근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수가 급증한 중앙아시아 출신 국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즉, 한국 문화와 다소 큰 차이를 보이는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경험하게 되는 문화적응의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 학교생활과 학업수행의 어려움 등을 통해 그들이 겪는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한 중앙아시아 대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중앙아시아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인은 무엇인가?

2) 중앙아시아 유학생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재한 중앙아시아 유학생들이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들이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을 극복하여 유학생생활을 효율적으로 잘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재한 중앙아시아 유학생의 문화적응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중앙아시아 유학생의 현황과 특성

중앙아시아를 별개의 지역으로 처음 생각한 것은 1843년 훔볼트(Alexander von Humboldt)였다. 그 이후 중앙아시아의 지리적 경계는 다양한 정의에 따라 달라졌다. 협소한 정의는 소련의 공식적 개념으로서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만을 포함하는 중간아시아(Middle Asia)를 말하고, 보다 넓은 정의로는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일부였던 적이 없었던 지역까지를 아우르는 중앙아시아(Central Asia)를 말한다(엄구호, 2012). 그런데 유네스코(UNESCO)는 풍토에 근거하여 중앙아시아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국가에는 몽골과 티벳과 같은 북동지역,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북서변경주, 파키스탄의 아자드 카슈미르주와 펀자브 지역, 인도의 펀자브, 카슈미르, 라다크 지역, 그리고 러시아의 북동지역에 있는 남부 타이가 등이 있다(엄구호, 2012).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구소련에서 독립한 중앙아시아 5개국인 우즈베크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포함하는 좁은 의미로 한정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현대적 개념이 대포하고 있는 민족의 개념을 본 연구에서 적용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강현민, 2014). 또한 교육부 통계 자료를 보면 외국인 유학생을 국적의 범주로 따라 분류하고 있다. 이런 분류 기준에 따르면 북동 이란, 북부 파키스탄 등은 중앙아시아 국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를 연구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중앙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유학생에 대한 정보는 단편적인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문화와 중앙아시아 문화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으므로 중앙아시아 민족의 전통적인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재한 중앙아시아 유학생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먼저, 중앙아시아 민족의 문화적 특성을 살펴보면, 문화적으로 이슬람 문화권에 속해 있고, 종교적 정체성 위에 언어, 부족, 지역, 신분 등과 같이 개별적인 다양한 요소들을 결합하여 각자의 공동체를 만들어 왔다(박상남, 2010; 강현민, 2014). 그리고 중앙아시아 5개 스탠 국가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생들의 비율도 차이가 난다. 그 이유는 각 국가의 정책적, 경제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즈베크스탄과 카자흐스탄은 1991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현재의 국명으로 개칭했다. 두 나라는 석유자원의 개발과 실�크로드 무역을 통해서 중앙아시아에서 급격하게 발전하며 경제적으로 활황세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크스탄은 1991년에 독립 이후 국가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즈베크스탄과 카자흐스탄만큼 경제가 급하게 발전하지 않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한국에서 유학중인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 유학생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교육 통계 자료에(2014) 의하면 한국에서 유학 중인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은 1592명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 유학생 현황

중앙아시아 (구소련 5개국)	합계	학사	석사	박사	기타 (연수)
우즈베크스탄	728	215	211	37	265
키르기스스탄	186	66	29	6	81
카자흐스탄	542	174	62	10	296
투르크메니스탄	26	19	2	1	4
타지크스탄	59	23	9	0	27

자료 출처 : 교육부 통계 자료(2014)

<표 1>에서 처럼, 국가별로 보면 우즈베크스탄 출신 유학생들이 728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카자흐스탄 출신 유학생들이 542

명, 키르기스스탄 출신 유학생들이 182명, 타지크스탄 출신 유학생들이 59명,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출신 유학생들이 26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이유를 살펴보면, 일부 한국어연수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다수의 학생들은 학사, 석사, 박사 등 학위과정 취득을 목적으로 한국에서 유학생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앙아시아 유학생의 숫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 유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중앙아시아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해서 개별화된 대상의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중앙아시아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인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2. 문화적응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1) 문화적응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일 경우 타국에 들어와서 가장 처음으로 배워야 하는 것이 문화일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자라온 자신의 문화가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하는 타문화는 적응하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김주혜, 2013). 문화가 다른 두 사회 집단이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접촉 관계에 들어 갈 때 그 결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쪽 성원들의 문화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문화적응(acculturation)이라고 한다(Berry,1980; 한유경, 2008). 그리고 Kagan(1990)은 문화적 적응(acculturation)을 한 문화의 구성원들에 의해 만들어진 행동과 가치가 다른 문화와 접한 결과로서 변화되는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들은 문화적 적응을 단순히 언어, 관습과 새로운 문화의 가치에 관해 알고 능숙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것의 의미를 새로이 배우고, 새로운 체계의 가치에 재적응하며 과거의 문화적 관습과 신념체계 및 행동을 포기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Prieto(1995)는 외국유학생들이 거주하는 나라의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유형의 문화적 적응양상을 보이며, 그 유형에 따라 유

학생들의 서비스에 관한 욕구도 다양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Locke(1992)는 문화적응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였는데, 두 문화적 유형(the bicultural individual; integration), 전통적인 유형(the traditional individual; separation), 한계선상에 있는 유형(the marginal individual; marginalization), 수용한 유형(the acculturated individual; assimilation)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에서 공부 중인 대부분의 재한 중양아시아 유학생들 또한 한국 문화 및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 예상되며, 이러한 어려움들은 그들의 대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된다.

2) 문화적응 스트레스

다른 문화 환경에 거주하는 개인이 새로운 환경에 처하면서 지금까지 익숙했던 생활습관과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적 기준과 다른 사회에 적응하여야 한다. 더구나 새로운 변화가 생활의 전 영역에 급격하게 영향을 미치면 이에 따른 어려움도 커질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에 따르면 다른 문화권으로 이주한 개인들이 다양한 변화로 인하여 겪는 문화적응은 개인들의 심리적 고통과 부정적응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한유경, 2008). 이민자 집단의 문화적 동화 경험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이의 관계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문화 적응 태도는 통합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적응 과정에서 이주자들은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상실의 경험을 하며, 갑작스럽고 과다한 변화와 자신의 지지체계를 잃은 상실감은 개인의 적응 능력에 과중한 부담을 주어 스트레스로 나타날 수 있다(한유경, 2008). 이러한 갑작스럽고, 과다한 변화는 문화적응 과정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충격의 대표적인 것이 문화충격이다(Churck, 1982; 한유경, 2008).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적 특성으로는 재정지원, 체류기간, 체류계획 및 한국어 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재인, 2009). 이소래 (1997)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문화적응 유형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화해체(deculturation)를 경험하는 사람은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동반하며, 반대로 통합(integration)을 추

구하는 사람은 가장 낮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그리고 동화(assimilation)는 중간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둘째, 문화적응의 단계도 문화적응과 관계되는 중요한 요인이다. Furman & Bocher(1989)는 교육이나 직업과 같은 특징은 새로운 사회에 대응하는 자원을 제공하는 기초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집단적, 제도적 요인들의 관리와 조절을 통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영향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는 교육학적 입장에서 볼 때,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대학당국의 정책, 조직구조, 외국인 유학생 유치목표의 구체화, 문화적응을 돕기 위한 적응 프로그램 구현 등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ahdhu & Asrabadi(1994)가 정의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개념적 정의를 따르고 있는데, 이들에 의하면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문화적응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특정한 행동유형(Berry et al., 1987; Sandhu & Asrabadi, 1994)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증오심, 두려움, 문화적 충격,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개념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유발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요인, 문화적 요인, 그리고 심리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즉,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성, 민족, 종교, 연령, 거주기간, 한국어 수준, 전공 등으로 구분하였고, 문화적 요인으로는 생활습관의 차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치관 차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심리적 요인으로는 문화충격, 두려움, 그리고 향수병으로 구분하였다.

3.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인을 크게 인구사회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그리고 문화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인구사회학적 요인

일반적으로 적응과 관련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박순희(2009)의 연구에 따르면 적응관련 요인들의 일반적 경향은 개인내적 요인으로서 의사소통기술이 가장 낮고 문화수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환경요인으로서 지역사회지지가 가장 낮고 가족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 경제수준에 따라 적응관련 및 사회적응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 가족 이동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의사소통기술과 지역사회지지, 경제수준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적응관련 요인을 모두 투입한 모델에서 경제수준은 유의성이 사라지고 의사소통기술과 지역사회지지가 높을수록 사회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응은 가정의 경제적인 수준보다는 개인내적 요인으로서 의사소통기술과 사회환경 요인으로서 지역사회지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영향요인 중 성별, 주관적인 경제수준, 한국 내 거주 가족여부,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인, 교수의 지지, 동료 지지, 정보적 지지, 경제적·도구적 지지 등이 모든 요인을 동시에 고려한 통합모형에서 여전히 이들의 우울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한 유학생의 우울 완화방안에 대해 논의한다(이홍직, 2012). 유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문화적 적응의 정도가 그들의 심리적 복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현지, 2003).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결혼이주여성이나 유학생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경우에 성별, 경제적 수준, 사회적지지 등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문화적 요인

재한 외국인 유학생은 전체적으로 유학생화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 새로운 한국문화에 빨리 적응하고 있지만, 무시할 수 없는 교육시스템, 생활방식, 학습습관, 개인의 독립성 정도 및 대인관계 등에서 기인한 차이가 존재하고, 이는 외국인 유학생의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 시키고, 문화 교류 및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반육홍, 2011). 한국어 능력 요인은 한국 매스 미디어 이용,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능력, 문화적응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문화적응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임수범 외, 2009). 성윤희(2010)의 연구에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문화적응 과정에서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중 한국어 능력과 한국인과의 상호교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3) 심리적 요인

외국인이 유학생들이 갖는 심리문화적인 요인 중에서 심리적 문화적응 유형(Ataca et al., 2002; Dona & Berry, 1994), 우울감(Hovey & King, 1996; Miranda, 1995)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Berry(1980)는 문화적응을 심리적 문화적응유형으로 개념화하여 모국문화의 가치 유지 여부와 주류사회의 문화수용 여부에 따라 동화영역, 분리영역, 통합영역, 주변화영역으로 구별하여 보고 있다(Berry, 1980; Berry et al., 1987). 심리적 문화적응유형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동화영역은 모국문화에 대한 정체감을 유지하지만 주류문화에 대한 정체감을 거부하는 측면을 측정하고자 한 것이다. 심리적 문화적응유형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영향을 받고 있으니 실증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데, 통합 역이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적관계로, 분리영역이나 주변화영역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정적관계로 나타나고 있다(Berry, 1987; Dona et al., 2001). 우울수준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남성, 1학년 인 경우, 기숙사 이외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체류기간이 1-3년인 경우, 전공이나 학교에 불만족한 경우, 한국어 수준이 보통인 경우, 성적이 낮은 경우, 어학연수를 받은 경우에 우울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혜선, 2015).

Ⅲ. 연구 방법

본 연구 목적은 한국에서 유학중인 중앙아시아 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인이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재한 중앙아시아 유학생들 대상으로 1:1 심층인터뷰와 전화인터뷰를 실시하고 이들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자가 본 연구를 하게 된 동기는 최근 한국에서 유학을 하는 학생들에 대

한 연구가 많아지고 있지만, 최근 급증하는 중양아시아 유학생들의 문화적 적응, 경제적인 문제, 학교생활과 학업수행의 어려움 등 중양아시아 유학생들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위와 같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양아시아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 체류 중인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심층인터뷰와 전화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이들의 경험과 현상을 잘 파악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의 경험과 사례를 보고자 하였고, 연구참여자 선정과 자료 수집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참여자

중양아시아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의 요인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표2〉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번	성별	나이	지역	전공	한국어 수준	종교
참여자(A)	여	26	인천	다문화교육	5급	이슬람
참여자(B)	여	25	인천	다문화교육	4급	기독교
참여자(C)	여	27	서울	한국어학	4급	이슬람
참여자(D)	남	26	대전	중국어	4급	이슬람
참여자(E)	여	23	대구	관광학	4급	기독교

〈표2〉와 같이 연구참여자는 서울, 인천, 대전, 대구 지역에 위치한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양아시아 유학생들 총 5명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전체 참여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학생 4명과 남학생 1명이다. 그리고 연령은 23세부터 27세까지이다. 종교를 살펴보면, 중양아시아의 특성상 이슬람교 믿는 유학생들이 3명이었고, 기독교 믿는 유학생도 2명이 나 있었다. 유학생들의 전공은 다문화교육 2명, 한국어학과 1명, 중국어학과 1

명, 관광학과 1명 등 다양한 전공을 보였다. 또한 한국어 수준을 물어봤을 때 4급 학생이 3명, 5급 학생은 1명으로, 모든 연구참여자가 높은 수준의 한국어 실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자료 수집

본 연구는 개인의 심층면담을 활용한 질적 사례연구로 수행하였다. 자료수집과 분석방법을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먼저 자료 수집은 2015년 4월 15일부터 7월 11일까지 심층인터뷰와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횟수는 개인적으로 1-2회 실시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이 부족하거나 추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전화와 이메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장소와 시간은 연구자가 면담하기 전에 사전 허락을 받고 연구참여자에게 가장 편만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한 다음에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윤리를 위하여 참여자들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고 실시하였으며, 연구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앓는다는 연구 동의서를 2부 작성한 후에 연구참여자에게 1부를 건내 주었다. 질문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3> 질문 내용

-
- 1)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 민족, 종교, 연령, 거주기간, 한국어 수준, 전공
 - 2) 문화적 요인: 생활습관 차이, 의사소통 어려움, 가치관 차이
 - 3) 심리적 요인: 문화충격, 두려움, 향수병
-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질문지는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대한 질문들로 유학생의 출신국, 민족, 종교, 나이, 한국에 거주기간, 한국어 수준과 전공 등에 대한 질문하였다. 그리고 문화적 요인에는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생활 습과 차이로 어려움, 한국 사람들과 의사소통 어려움, 한국 사람들과 본국 사람들과 가치관 차이와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한 노력을 했는지를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요인과 관련한 질문들에는 한국에서 문화충격, 두

려움, 그리고 향수병을 느낀 경험,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다. 인터뷰한 내용은 녹음하여 전사하였고, 전사한 내용을 코딩과정을 통하여 유목화 하였다. 그리고 각 요인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요소를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하여 탐색하여 이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앙아시아 유학생 5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하였고, 연구 결과를 문화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문화적 요인

한국과 본국의 생활습관 차이,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 가치관 차이, 문화적 차이에 대해 질문했고, 이러한 문화적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살펴보았다.

1) 한국의 ‘빨리 빨리’ 문화를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유학생들의 경우 다른 나라에 와서 가장 처음으로 배워야 하는 것이 그 나라의 문화일 것이다. 한국으로 유학을 온 많은 학생들도 자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 차이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빨리 빨리 하니까 이거는 어려웠어요. 따라하는 게 어려웠어요.” (참여자 A)

“한국 사람들의 속도. 너무 빨라서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원가를 해야 되면 빨리 빨리

해야 되는 거, 원래 한국 사람들이 천천히 해도 되 말하지만 사실은 빨리 하라는 뜻 같아요.” (참여자 B)

“제일 어려웠던 것은 키르기스스탄과 한국을 비교하면 키르기스스탄 사람들이 너무 느리고 약속 시간을 잘 안 지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그러지 않아 그래서 그런 습관은 제가 한국에 와서 고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약속 시간을 잘 지키고 미리 미리 준비해서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일찍 나가는데 저도 한국에 와서 그런 습관을 얻게 되었어요.” (참여자 C)

한국의 ‘빨리 빨리’ 문화는 지난 50년간 경제발전을 해오기 위해서 생긴 문화이다. 참여자 A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빨리 빨리’ 하니까 따라가기 어렵다고 하였다. 참여자 B도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속도가 빠르게 느껴진다고 대답했다. 참여자 C는 자국 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보다 느리다고 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유목 민족이기 때문에 천천히 생활하는 것이 익숙한 문화적 배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연구참여자 A, B, C의 경우 한국의 생활 습관을 따라가기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유학생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 외국인 근로자들도 한국의 ‘빨리 빨리’ 문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루혜옥 등의(2009)의 연구에서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 경우에 ‘빨리 빨리’만 외치는 한국 고용주들의 모습에서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일을 빨리해야 한다는 의미 자체가 매우 생소하였으며, 그런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매우 무시당하는 기분이 든다고 했다.

2) 의사소통과 인사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국가와 민족마다 때와 장소, 그리고 대상에 따라 인사법이 다양하다. 예를 들어, 스페인과 이탈리아 유럽의 나라들이 친근함의 표현으로 인사를 볼뽀뽀를 한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악수를 하며 인사를 한다. 그리고 미얀마에선 팔짱을 낀 상태로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미얀마에선 팔짱을 끼고 있는 게 웃어른이나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특히, 유교문화권인 한국은 사람들간의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때와 장소, 대상에 따라 인사

법이 다르다.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이러한 자국과 다른 인사법으로 인해 낯설음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른들과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그거 좀 어려웠어요.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거 어려웠어요.” (참여자 A)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바꿔서 조금 그런 게 있잖아요.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돌려서 이야기하는 게요.” (참여자 B)

“처음에는 인사할 때 머리를 밑으로 하고 우리나라에서 손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냥 말로 하는데, 그 한국에 와서 그렇게 손으로 하려고 했는데 손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모리를 밑으로 내리고 그래서 많이 헛갈리기는 거 많이 있었어요.” (참여자 D)

유교문화권인 한국은 나이, 효, 예를 중요시 한다. 참여자 A와 B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렵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은지 등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크다고 대답했다. 왜냐하면 중앙아시아 나라들은 유교문화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유교문화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인사를 할 때 손으로 하는 편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다수는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손으로 인사한다. 이러한 인사 차이 때문에 연구 참여자 D는 한국에서 어떠한 인사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어렵고 헛갈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대답했다. 특히나 중앙아시아 유학생들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머리를 숙이는 인사법이 가장 낯설고 어렵다고 대답했다.

3) 가족 보다 일과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자기 가치관이 있다. 특히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문화의 차이로 인해 이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우즈베크 사람들 경우에는 가족이 중요하는데 여기 와서 좀 다르게 가족이 아니라 가족보다 일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 A)

“우리나라는 가족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가족보다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어디 가야되면 우리 연구실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자 분이신데 가족이 있는데도 어디로 답사 가야된다고 아니면 학회 같은 데 가야 된다고 그럼 일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1박 2일이나 2박 3 일이나,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 까지 학교에 있는데 집에 있는 사람들이 저녁을 알아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참여자 B)

“가치관 차이가 제가 생각하면은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거 바로 돈인데 키르기스스탄에서 돈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는 너무 중요하고 생각해서 그거 바로 가치관 차이라고 제가 봐요. 그래서 키르기스스탄에서는 돈 없이도 잘 살 수 있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어서 그거 가치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C)

연구참여자 A와 B는 한국 사람들이 가족 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이들은 자국과 한국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도 생각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고 했다. 한국 사람들이 자국 사람들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이렇듯 가족과 경제적 관념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낯선 문화를 이해하기

태어나면서부터 자라온 자신의 문화가 아닌 새로운 문화를 받아드리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외국인들 경우에는 본국문화와 이주국 문화가 유사한 경우에는 빠르나, 전혀 다른 문화권의 경우에는 적응하기에 훨씬 어려움을 볼 수 있다.

“처음 왔을 때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 이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봐요.” (참여자 A)

“제가 학교에서 국제교류재단에서 거기서 일하면서 좀 여러 한국인이랑 하면서 알바하면서 돈도 벌기 버는데 습관을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봤어요.” (참여자 D)

“나는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매 월 1번 다양한 문화체험에서 참석하고 있어요.” (참여자 E)

중앙아시아 유학생들은 한국의 낯선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인과 직접 접촉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A는 이해가 잘되지 않는 문화를 접하게 되면 직접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본다. 참여자 D는 본인이 재학중인 대학교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한국 사람들과 접촉을 통해서 한국인의 습관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참여자 E는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매 월 1회씩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간접 경험보다 직접 경험을 통해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고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심리적 요인

1) 짧은 옷과 음식 먹는 모습에 놀랐어요.

각 나라 문화에 따라 먹는 습관과 옷을 입는 모습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은 한국의 학생들의 옷있는 습관과 음식을 먹는 모습에서 상당한 문화충격을 경험하게 되었다.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를 볼때 , 치마가 너무 짧아서 짧는데 불편이에요. 불편하기에 불구하고 입고 있어요. 불편해요 그 여자에게 불편하면 입지 않는 거 좋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 A)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처음 한국 식당에 가서 거기서 한국 사람들이 음식 먹는 거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저의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조용히 소리 안 나고 이야기 할 때도 소리 많이 안 내고 대화도 조용히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대화할 때도 소리 크게 저서 음식을 먹을 때도 껌껌거리고 소리 내면서 먹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충격 받은 적이 있었어요.” (참여자 C)

참여자 A의 경우, 한국의 많은 여성들이 옷을 너무 짧게 입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여성들의 신체를 대부분 가리는 이슬람국가 출신은 그들에게는 큰 문화적 충격이었다. 또 참여자 C에게 충격적인 문화는 한국인의 음식 먹는 문화였다.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소리 내면서 먹거나, 먹으면서

서로 큰 소리로 대화를 한다. 이러한 모습은 중앙아시아 국가와 큰 차이가 있다.

2)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껴요.

대부분 중앙아시아 유학생들은 한국의 비싼 물가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낀다. 중앙아시아 유학생들은 학비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장학생이지만 생활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경제적인 두려움, 처음에 제가 한국 왔을 때 한국생활 비 얼마나 물렸으니까 그냥 막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계산해야 되고 장학금 받을 때 까지 얼마 남았는지 항상 확인해야 되고 왜냐하면 기숙사비도 내야 되니까 항상 생각 하게 되요. 신경 써야 되요.” (참여자 B)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만 두려움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사니까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돈 걱정하는 점 그런 두려움 있었어요.” (참여자 C)

참여자 B는 항상 돈을 아끼고 다음 달 생활비까지 계산을 하고 있고, 만약 돈이 없으면, 한국에서 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대답했다. 유학생들은 경제적 경제적인 두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의 학교 적응과 관련 지어 볼 때 학업적인 스트레스와 더불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크게 꼽고 있다.

3) 가족과 고향이 너무 그리워요.

낯선 땅에 유학 온 외국인 유학생들은 자국의 가족과 지인을 그리워하는 향수병을 겪게 된다.

“처음 왔을 때부터 시작 했고 특히는 온지 2달 지나서 엄마 고향압이 높아졌어요. 그것 때문에 울었고 밤새우도록 울었어요. 그 때는 그림프고.” (참여자 A)

“아팠을 때 아플때 집에 가고 싶고 엄마 보고 싶고 평소에는 우리 조카만 보고 싶어요.” (참여자 B)

“엄마가 보고 싶을 때, 친구가 어머니랑 이야기할 때 저도 엄마를 보고 싶어요. 아니면 혼자 있을 때 그런 거 느끼고 누군가 때문에 그런 거 느끼고 이야기가 나오면 보고 싶은 거예요.” (참여자 D)

“당연히 있었죠. 제가 한국에 1년만 있으면 집에 가고 싶고, 엄마, 아빠 보고 싶고 그러는데 그때 마다 뭐라고 할까 충전은 1년에 한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키르기스스탄에 갔다 오면 괜찮아지고, 근데 1년만 안 가면은 그때마다 향수병이 생겨요.” (참여자 C)

대부분 연구참여자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다. 참여자 A는 어머니가 편찮으시기 때문에 더 더욱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컸고, 참여자 B는 자신이 아팠을 때 엄마가 더 그리웠다고 응답했다. 또한 이들은 한국의 친구들이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부러운 마음이 생겨 부모님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진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향수병을 해결하기 위해 참여자 C는 방학을 이용해 고향에 다녀오고, 그러면 향수병이 좀 괜찮아진다고 응답했다. 연구참여자 전원이 누구보다 자신들에게 소중한 사람은 가족이며, 특히 어머니가 가장 보고 싶다고 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아시아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유학중인 중앙아시아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1:1 심층인터뷰와 전화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문화적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아시아 5개 스탠 나라들은 유목민이라서 옛날부터 산에 가까운 것에 거주하며,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계속 이사하면서 살아 왔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느린 편이다. 느린 속도가 체화된 중앙아시아 유학생들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모든 것을 빨리 빨리 하는 한국의 문화를 따라가기가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화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생활습관 차이도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

다.

둘째, 중앙아시아 5개 스탠 나라들은 대부분 이슬람교에 믿고 있기 때문에 인사법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슬람교에서는 인사할 때 보통 손으로 하는 편이다. 하지만 유교 문화권인 한국에서는 나이에 따라 머리를 숙여야 하거나 장소와 때에 따라 다른 인사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즉, 이들은 언제,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하는지, 대화를 할 때 어떤 존댓말을 써야 하는지 등이 어렵다고 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유학생들이 한국 사람들이랑 직접 접촉하거나 또는 다양한 문화 체험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셋째, 중앙아시아의 전통사회는 혈연사회로서 대가족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 내부에서는 가장의 권위가 확실하고, 가족은 그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형태를 취한다. 또한 이들은 무엇보다 가족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 그들이 화목한 가족이 있으면 돈, 일 등은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중앙아시아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자국과 가장 크게 느낀 가치관의 차이가 바로 가족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 사람들은 가족보다 일을 더 소중하게 느끼고 있었다. 또한 경제적 관념에 대한 차이도 보였다. 한국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한국에서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돈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즉, 중앙아시아 나라보다 일과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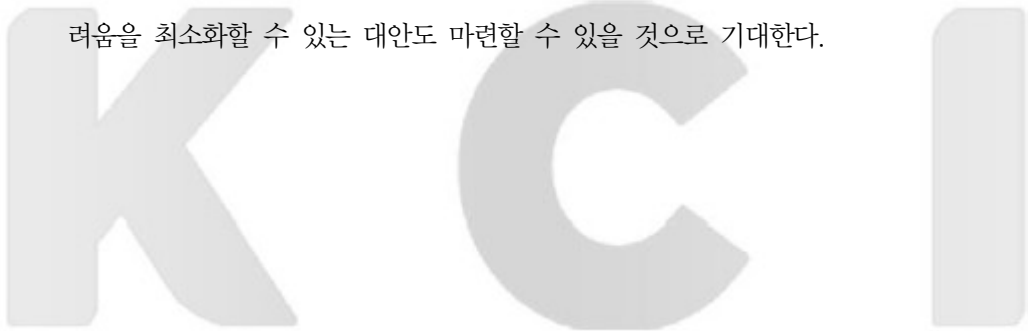
넷째, 문화 충격은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문화 환경이나 사회 환경에 있을 때 느끼는 불안한 감정의 표현이다. 누구든 새로운 문화를 소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은 한국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특히 여성들의 짧은 옷을 선호하는 옷 입는 스타일과 음식을 소리 내면서 빨리 먹는 식습관을 보고 문화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충격은 한국의 문화가 서구화됨에 따라 이슬람문화권인 중앙아시아 문화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대부분 중앙아시아 유학생들은 한국의 비싼 물가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이러한 어려움은 혹시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낯선 땅에 유학 온 외국인 유학생들은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병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이 아플 때, 문화적인 충격을 받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에 특히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양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이 한국이라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면서 생기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인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소극적이고 간접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하거나, 직면 하는 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하기 위해 질문을 하거나,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중양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이 한국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재은(2009).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적응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혜(2013). 외국인 유학생의 성격강점과 문화적응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임순(2006).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비영리연구, 5(2), 159-197.
- 박순희(2009).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과 사회적응. 한국아동복지학회, 29, 125-154.
- 박은경(2011). 외국인 유학생의 국제이주와 지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다문화, 1(2), 113-139.
- 반옥홍(2011).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문화에 대한 불확실성 감소와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윤희(2010). 국내 체류 외국인의 한국문화적응과 모국문화친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언론학회, 54(4), 374-397.
- 이수범, 김동우(2009).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소통학회, 11, 47-79.
- 이현지(2003). 청소년 유학생들의 문화적 적응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학회, 10(4), 121-142.
- 이홍직(2012).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인구 사회학적 특성, 한국어 능력,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웰니스학회지, 7(3), 129-143.
- 정혜선(2015).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 영향요인.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5(1), 107-120.
- 한유경(2009). 재한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재한 몽골 유학생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erry, J. W, & Kim. U. (1987).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In P. Dasen, J. W. Berry & N. Sartorius (Eds.) *Cross-Cultural Psychology and Health Towards Applications*. London: Sage.

- Sandhu, D. S., & Asrabai, B. R. (1994). Development of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 435-448.

K C I

Abstract

Analysis on the Cultural Adaptation Stress of Central Asian Students in South Korea

Lee, Mijung · Urkunchiev Adylbek · Park, Soojung
· Aigozhayeva Aigerim (Inh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eal the way the Central Asian students residing in Korea are dealing with stress in Cultural Adaptation, and the influence the Cultural Adaptation stress has on them. Five students from Central Asian countries were selected, with whom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and the influence of their cultural adaptation stress was analysed.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Cultural Adaptation stress of the Central Asian students is: first, it is difficult to keep up with the “quickly quickly” culture. Second, they experienced difficulty in greeting people based on the difference in age and position. Third, the difference in values showed that Koreans think of work as more important than family. Fourth, they received culture shock from Koreans making noises while chewing their food and eating quickly, the types of clothes they wear. Fifth, they said they had financial fear due to high prices in Korea. It was revealed that they experience homesickness and miss their parents when they get sick and receive culture shock.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method to successfully and effectively overcome the influence of Cultural Adaptation Stress was presented. It is believed that with the help of this study Central Asian students can solve the problems of Cultural Adaptation Stress and lead a stable and active life

as a student in South Korea.

[Keyword] Cultural adaptation, Cultural adaptation stress, Value difference, Cultural difference, Central Asia

K C I